

안철수 '내일' 전국 공약 채비 정치권 촉각

(정책네트워크)

내달 21일 출범...정치비전·국정운영 밑그림 제시
대구·광주·부산돌며 세미나·간담회 개최 '세물어' **10월 재보선 독자 후보 검토...민주당과 거리 유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내달 자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을 공식 출범시킨 뒤 전국적인 세(勢) 확산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안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안 의원은 오는 6월 21일 서울에서 '내일'의 창립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부산 등지를 돌며 지역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가

질 예정이다. 이번 창립 콘퍼런스에서는 정치, 경제, 노동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구 조개략이 필요한 어젠다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호호했던 안 의원의 정치 비전과 국정 운영 밑그림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의 지난 대선의 여야 공동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현 정부 및 여야 모두에 각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일'의 소장을 맡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지난 22일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것발은 상당히 그 색이 퇴색한 것 같다"며 "경제민주화는 한 두 가지 재발행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역별 세미나를 통해 전국적인 이슈 메이킹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지지 세력을 지역 단위로 결집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안풍(安風, 안철수바람)'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한편, 안 의원의 향후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나 연대보다는 독자세력화에 우선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간담

회에서 민주당과의 향후 연대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지금 여론조사 보면 그런 (단일화를 바라는) 흐름은 (대선 때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안 의원의 관계를 "경쟁적 동지관계"라고 규정할 데 대해 "여야 의원 모두 경쟁적 동지관계"라며 "꼭 그렇게 편을 가르려고 계속 강요하는 분위기가 양당제 폐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적이나, 동지나 하다 보니 경계는 진보적 정책을 하고, 안보쪽은 보수적인 것을 한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안 의원의 언급은 민주당과 거리를 두며 10월 재·보선 등에서 연대나 후보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독자 세력화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

이된다. 신당 창당과 관련, 안 의원은 "지금 은 사람들을 만나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그 다음 것은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창당보다 인재 영입에 집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무임승차'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헌신하지 않았지만 백신을 만들고 다른 직업을 하면서도 저를 위해 살지는 않았다"면서 "모든 것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과 관련, 안 의원은 "경기가 나쁘다고 개혁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에 문제점을 고치는 적기로,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독자 세력화' 추진

민주 "신경쓰이네" 견제 나서

민주당이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려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 '아권 분열'을 꺼내들며 집중 견제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 창립선언 공식화 직후 "예고됐던 일"이라며 애써 '표정관리'를 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위기감에 따른 경계심의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해 "다소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최근 세 불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기성 정치인과의 큰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경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과 안 의원은 국회 활동을 통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127석의 노후우와 60년 전통의 자력으로 민주당이 분명

히 '안철수 신당'을 압도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정책공조나 연대 가능성에 거리를 두는 견해도 나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안 의원 촉과) 현 시점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연대를 한다. 공조를 한다는 것은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 "연구소를 설립해 구체적인 정치적 입장을 해보면 그것을 보고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리를 뒀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불교방송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향후 안 의원의 행보에 대해 "창당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창당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창당이라는 경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과 안 의원은 국회 활동을 통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127석의 노후우와 60년 전통의 자력으로 민주당이 분명

남양유업 사태 같은 '갑의 횡포' 논란 방지 특별법 제정 추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과 관련, "특수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려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당론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사랑채에서 6월 임시국회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다. 왼쪽부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최경환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연남뉴스

장 의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을(乙)의 피해 구제가 좀 더 쉽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개별 손해배상 책임만으로는 갑의 횡포로 인한 을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구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올린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다시 낮추는데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장은 이외에도 6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민생법안' 6월국회 처리 집중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 우선

여야는 다음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 동안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생 법안을 다루는 데 집중하기로 한 여야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다음달 4~5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각각 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 처리를 위한 분회 의는 사흘 동안 열며 필요하면 추가

회기로 했다. 임시국회의 세부 일정, 의제, 처리법안, 특별위원회 운영과 같은 구체적 사항은 이번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율한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각각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어 다른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 이 밖에 진주의료원, 밀양 송전탑 건설과 같은 지방 현안이 잇따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여야는 지도부와 16개 광역단체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이상직 의원직 상실형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50·전주 완산)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는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받아 항소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높은 형량을 받았다. 광주 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4일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회사의 대표 자격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남뉴스

기지개 켜는 文, 안과 경쟁 시동?

시민정치론 내세워 정권교체 역할론 적극 설파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정치적 침체를 했던 문재인 의원이 서서히 문 밖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민주당 5·4 정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지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화를 선언하면서 그의 최근 행보에는 정치적 색채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야권 구도 재편의 막이 오른 상황에서 안 의원의 급속한 출몰현상을 막기 위한 균형추로서 문 의원이 나서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문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신당'에 대해 "경쟁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정권교체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한겨레신문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해 야권 혁신과 관련해 '시민정치론'을 언급한 데 이어 소셜네트워크인 트위터에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올리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오는 6월 임시국회부터는 의정 활동에도 활발히 나서며 온·오프 공간에서 존재감을 부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시민정치론'은 유력 정치인 몇몇이 좌우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질서 재편을 이뤄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혁신의 중심세력으로 당원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당원중심 혁신론'과 상충되는 측면이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 시민정치세력인 '혁신과 통합'과 통합을 이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도 많다. 문 의원의 '시민정치론'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의원의 시민정치론은 민주당 내부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당내의 소통과 통합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계림동 ● 동부소방서 ● 구.한미소방 ● 대한생명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 고객 주차장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080130-광-26%요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당일대출!

- ▶ 건물/상가 추가대출
-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 전. 담. 나대지
- ▶ 공유지분/미준공건물
- ▶ 부동산 취득자금
- ▶ 사업자금

※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공 3 트라이슈머 발포형 시공 4 시공 후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010-6603-040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